

인터넷 커뮤니티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하여 타인의 HIV감염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 문제가 되고 있다. 아웃팅(감염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일)당한 감염인들은 감염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면서 친구를 잃고, 직장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예방법에서 간과하고 있는 직무와 무관한 사람에 의한 감염사실 공개에 대하여 엄숙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주위사람에 의한 감염사실공개 이를 막을 법적 장치 필요

▣ 박광서 · 리보포원(HIV/AIDS 감염인/환자를 위한 단체 대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7조와 26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간호에 참여한 자와 감염자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자에 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온다. 하지만 이는 관련 공무원 및 의료진에 관한 사항일 뿐이고 감염인 커뮤니티에서 혹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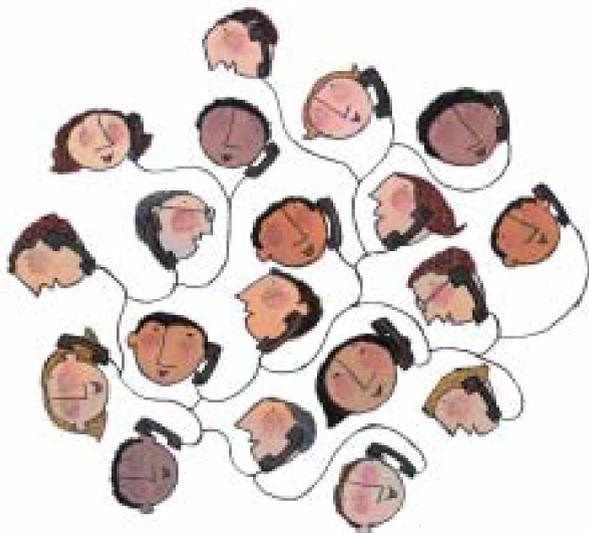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감염인을 노출시킬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사상의 제재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미 주위에 감염인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후라 사실상의 제재가 없다고 보는 것이 낫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버리기에는 감염인이 감당해야 하는 심적인 부담감은 거의 사회적 죽음으로 진단할 수 있을 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 HIV 감염인에게 너그럽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는 감염인들에게 아웃팅은 또 하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커뮤니티나 주위사람에게 감염사실 공개시 제재 전무

사례1)

함께 동거하던 감염인이 헤어진 후 상대방의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상대방에 대한 신상과 함께



그가 감염인인 사실을 게시하는 일이 있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글을 게시한 감염인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그의 문제로 돌려 어느 정도 무마되기는 하였다.

사례2)

감염인인 것을 아는 비감염인 친구가 그가 에이즈를 확산시키고 다닌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또한 회사와 감염인의 가족에게 감염인인 것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감염인이던 그는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선언하고 나오고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고자 그 친구와의 만남을 기다리며 경찰서 앞에서 기다렸다. 나중에 감염인인 친구가 확산시키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비감염인 친구에게 오히려 너를 신고하겠다고 강하게 나가자 사건이 무마되기는 하였으나 몇몇 주위의 친구들에게 감염사실이 알려졌다.

사례3)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를 방문한 비감염인이 감염인인 것을 눈치채고는 주위의 모든 친구들에게 감염사실을 알려 그 감염인은 퇴원 후 모든 친구로부터 연락이 단절된 채로 지내고 친구들이 여기저기에 그의 감염사실을 이야기하여 동성애자이던 그는 소문으로 인하여 동성에 모임에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다.

타인에 의한 아웃팅, 또 한번의 사회적 죽음 친구도, 직장도 잃고 자신의 위치마저 흔들려

위에서 본 3가지의 사례를 보면 감염사실이 본인 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알려지면서 감염인은 친구를



잃고, 직장을 잃고 자신의 설 위치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 개인적인 일이라고는 하나 아직도 에이즈에 무지하고 편견을 갖고 있는 이 땅에서 감염인이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모든 이들에게 본인의 감염사실이 알려진 이후인지라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게 된다. 민사상의 어떠한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위에 감염인임이 노출된 상황에서는 아무런 생활을 할 수 없기에 더욱 안타깝기만 하다.

이제는 감염인의 수도 많아지고 이런 개인에 의한 아웃팅으로 많은 이들이 주위에 감염사실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의료인과 관련 종사자들에 의한 아웃팅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감염인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의료인과 관련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개인이 노출시킬 경우에도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감염인 개개인이 그들의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때라 생각된다.